

삼대(三代)가 같이 사는 법

글_이용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요즘은 보기 드물게 삼대(三代)가 같이 사는 집의 손자 부부가 진료실의 문을 두드렸다. 조부모께서 1층 내실을, 부모님은 건넌방을, 그리고 손자 내외와 형님 내외는 2층에서 독립된 방 한 칸씩을 쓰고 있다고 한다. 조부께서 일찍 취침을 하시는 내실의 바로 위층의 방에 신선살림을 차린 손자 내외는 직장에서 돌아와 부부간에 애정을 표출할 때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신선은 하룻밤은 짧기만 한데 바로 아랫방에 주무시는 조부모님은 어린 손자의 마음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하였다. 그러기를 6개월, 진료실에 나타난 손자의 표정은 어둡기 짝이 없었다. 27세의 건강한 남성이 묘사하는 '우리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지 않으니 이견 시트콤의 한 장면과 다를 바 없었다. 우선 기본적인 배경질항 검사에서 전혀 이상소견이 없는지라 다른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넌지시 신선 부부의 결혼 이후의 바깥 나들이에 대해 물었더니 반색이다.

“휴일에도 식구들이 다같이 움직이는 걸요?”

신부와 함께 근교에라도 나가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치료제는 기본적인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다. 한 달 후에 나타난 손자의 얼굴엔 희색이 가득했다. 인위적인 치료를 더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이



소풍나온 즐거운 3대 가족

미 자신감을 되찾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2층이 아닌 단층 집을 짓고 삼대, 사대가 다같이 화목하게 사셨던 모양이다.

또 다른 삼대가 같이 사는 집안의 할아버지 이야기이다. 맞벌이 손자 내외가 수시로 아이를 맡기고 다니니 할머니는 손자 보는 재미에 밤에도 건넌방에 가서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일찌감치 자궁적출술을 받았지만 호르몬 보충요법으로 10년 넘게 부부생활에 지장은 없던 터에 최근에 손자녀석 때문에 벌어지는 뜻하지 않은 별거생활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마음이 동하는 날엔 할아버지는 혼자요, 가끔 할머니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날이면 신경써서 해본다는 것이 실패 이기를 3개월.

“이거 원, 내 생활이 망가져 버렸네요.”

할아버지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는 치료를 기대하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노년기의 남성이었지만 몇 번 사용한 경구 치료제의 효과는 대만족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할아버지에게 약물복용 없이도 이전의 부부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스런 일상생활을 위해 부부간의 문제점을 대화로 풀어보라고 제안하였다.

21세기라고 해서 삼대가 같이 살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대가족이 어우러져 살면서 정을 느끼고 집안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현대사회로 옮겨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변한 만큼 부부간의 성생활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동반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삼대문화'는 사랑도 함께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㉔